

멕시코 농촌 가구와 친척관계의 구조 및 변화양상 : 떼보스틀란의 한 농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김세진(강원대 문화인류학과)**

- I. 들어가며
- II. 연구지의 인문지리적 배경
- III. 가족과 친척관계
- IV. 가구유형의 변화와 특징
- V. 농촌 가구의 적응전략과 변화
- VI. 나가며

I. 들어가며

인간의 적응 행위는 주위의 환경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과 의도를 관철해 가며 환경을 창조해 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행위는 최소한 개인과 사회문화라는 두 범주에서 일어난다. 각각의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한 문화 내에서도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독특한 개별 행위들이 나타난다. 이런 개인의 행위에 대한 관심은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하였고, 특히 1960년대부터 개별 수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Bennett 1969; Orlove

*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 2001년 신입교수 일반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Se-Gun Kim(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morsg@kangwon.ac.kr), "La estructura y cambio de la unidad doméstica y las relaciones de parentesco en un pueblo rural de Tepoztlán, Morelos, México".

1980)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잘 조직화된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한 체계 또는 구조의 한 요소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촌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구(hogar/household)를 생산과 소비의 기본 단위로 보고, 가구 내에서 적응 전략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Barlett 1980, 553). 사회성원들은 가구와 친척 등에 기반한 생산조직 그리고 정파, 종교 결사체, 카르고 체계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조직 등과 같은 각기 다양한 사회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그 사회의 규범에 따라 조직화된다.

농촌사회에서, “농업은 지배적인 활동이다. 즉 생산자들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농업활동에 투입되고, 또한 여타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직이 농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Melliassoux 1977, 57). 농촌사회에서 생산과정은 단지 경제활동의 한 고리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적응전략에 의거하여 개념지워지고 결정된다.

멕시코 농촌사회에서 농업노동은 기본적으로 가족·친척, 의사친척, 그리고 이웃의 협동에 바탕을 둔다. 특히 가구는 생산, 소비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단위이고,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활동의 기본적인 틀이다. 가구는 핵가족 또는 확대가족에 바탕을 두었던 간에 “친척관계와 역할, 사회화, 경제적 협동, 문화의 담지와 변형의 활동이 표현되는 원초적 틀이다”(Lazos y Godínez 1996, 247). 이와 함께 멕시코 농촌 사회에서 콤파드라스고(Campadrazgo)는 개인이 가족을 벗어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멕시코 농민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구와 콤파드라스고 등의 사회조직을 통해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온 만큼, 가구 및 사회조직들도 다양한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

1) 혈연관계에 기반한 가족과 소위 “한 지붕 아래 사는 성원들의 조직”인 가구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와 같은 소규모 농업에 바탕을 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구는 가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이 가족원이 아닌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가족과 가구를 함께 사용한다.

다. 본 연구는 멕시코 농촌의 가족 및 친척관계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변화양상에 대한 시론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먼저 멕시코 농촌 가구 및 콤파드라스고의 구조, 역할 및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다음으로 혁명 이후 진행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가구와 친척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80년대부터 지속된 멕시코 경제위기 속에서 멕시코 농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들을 동원하여 적응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의 최소 단위인 가구는 어떤 역할을 하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모렐로스(Morelos) 주의 테쁘스틀란(Tepoztán) 무니시피오(municipio)의 산 안드레스 데 라 칼(San Andrés de la Cal, 이하 산 안드레스)이라는 한 농촌에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루어진 조사(Kim 1999) 및 2002년 7월에 행해진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II. 연구지의 인문지리적 배경

테쁘스틀란은 멕시코시티의 남부지역과 접해 있는 모렐로스 북부군(郡)들 중의 하나로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가량 떨어져 있다. 3천 미터가 넘는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테쁘스틀란은 매우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어 멕시코시티 근교에서 손꼽히는 휴양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토지가 적고 박토로 농업조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농사의 필수요소인 물은 5월이나 6월 초에 시작하여 10월경에 끝나는 우기에 집중되어 있고, 게다가 이 지역이 화산지대로 침투성이 강하여 관개시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테쁘스틀란 등의 북부지역에 내려 곧바로 침투하였다가 다시 복류하는 물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사탕수수, 벼 등의 상업농이 발달한 모렐로스 남부지역과는 달리 북부지역은 옥수수·콩·호박 등의 전통적인 생계농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떼쁘스틀란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일 (농업)노동에 많이 종사하였는데, 특히 식민지시기부터 1910년 멕시코혁명 전까지 야우테펙(Yautepec)과 같은 인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탕수수 대농장(hacienda)의 주요 노동공급원이었다. 떼쁘스틀란군을 형성하는 8개 마을 중의 하나인 산 안드레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을 이름(de la cal, 석회)에서 보이듯이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건기 동안에 설탕정제, 토르띠야(tortilla, 옥수수부침)용 옥수수 반죽을 위한 첨가제 그리고 건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석회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다른 마을 주민들에 비해 대농장에 노동력을 파는 경우도 적었고, 사탕수수 대농장 등지에서 일일 농업노동자(peón)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일정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 주민들의 삶도 옥수수 생계 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산 안드레스 농민들의 토지 소유 양태를 보면, 총 203 가구 중 92가구(1997년 기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1 헥타르 미만이 31.5%, 1-2 헥타르가 28.3%, 2-3 헥타르가 18.5%, 3-4 헥타르가 10.9%, 4-5 헥타르가 4.3% 그리고 5 헥타르 이상은 6.6%이다. 구텔만(Gutelman 1975)과 스타벤하겐(Stavenhagen 1982)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멕시코에서 농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농의 토지 소유량은 5-25 헥타르이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산 안드레스 농민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소토지 소유 농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기의 옥수수 생계농업과 건기의 석회생산을 중심으로 한 생계활동은 1910년 혁명이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 대토지 소유자 및 상업농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멕시코 농촌근대화의 파고가 멕시코 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산안드레스의 소토지 영세농민들을 강렬하게 강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점차 산 안드레스 농민들도 근대화의 과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오히려 농민들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한 근대화의

파고에 자신들을 신고자 하였다. 특히 1960·70년대에 토마토(jitomate)의 상업적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산 안드레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를 구가하였으며, 급속히 시장 경제로 편입되었다. 주민들은 토마토 재배 외에도 인근 도시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자리 걱정이 없었던 70년대를 다시 돌아가고픈 향수를 자아낼 정도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 높은 투자비용, 불안한 시장가격, 토질의 저하에 따른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토마토 재배는 쇠퇴하고, 거기에 국내 경제위기에 따른 인근 공업단지의 일자리마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산 안드레스 주민들은 미국·캐나다로의 계절적 농업이민과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하거나, 옥수수·콩 등의 기본 생계 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김세건 2000a, 120-121). 이렇듯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주어진 강제된 근대화의 과정에 결코 소극적 존재로 안주하기보다는, 이용가능한 자연적, 사회·문화적 자원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산 안드레스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III. 가족과 친척관계

III.1. 가구 형성과 역할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농촌 사회는 가족 중심적 사회이고(Ruiz 1991; Mounsey 1991), 산안드레스도 예외는 아니다. 즉 산 안드레스는 명백한 단계혈통에 의해 조직된 씨족 또는 종족과 같은 조직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로 개인은 단계(unilineal) 또는 선계(ambilineal) 혈통에 따르는 어떤 친척조직도 형성하지 않는다.²⁾ 이런 현상은 스

2) 스페인 정복 전(前)의 원주민 사회는 깔빨리(Calpulli)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깔빨리가 혈연에 기반을 둔 친척조직인가 아니면 정부에 의해 노동력과 공물을 집합시키

페인 식민지 지배의 결과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떼뽀스플란을 연구한 루이스(Lewis 1976, 107)가 지적한 것처럼,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 사회의 깔빨리 또는 씨족을 해체하고 그 토지 소유권과 다른 기능을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 당국에 이전함으로써 생긴 기존 조직의 해체에 대한 방어적 반작용의 결과로 가족, 특히 핵가족주의적 속성이 떼뽀스플란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이후 농촌사회에서 가족은 혈연관계에 의해 구성된 유일한 조직으로, 개인 및 마을 사회 조직 및 행위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가족은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산 안드레스에서 결혼은 내혼적 성격이 강하여 최근까지도 마을 내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이 많이 이루어진다. 내혼제는 사회적 연망의 확산보다는 끊임 없이 관계의 재생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 산 안드레스에서 내혼제가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나면, 대부분 주민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 친인척관계가 없는 혼인상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산 안드레스 사람들은 같은 조상일지라도 3대가 지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다음의 대화에서 잘 보여진다.

에스페란사(Esperanza): 로사(Ros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르헤(Jorge, 에스페란사의 아들)가 그녀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연구자: 로라와 호르헤는 사촌간이 아닌가요?

에스페란사: 세 번째 사촌(한국의 8촌간)이라 성이 다르다. 결혼해도

기 위해 만들어진 정착지의 정치적 경계인 지연조직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친척조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깔빨리는 출생에 따라 소속감을 갖는 친척그룹으로 이루어졌다. 깔빨리의 주요 직책은 계층화된 일정한 계통의 후손에 이어졌더라도, 성원들은 상대적으로 평등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공동 조상신, 깔빨떼오티(Calpultéoti)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조상신에 대한 믿음은 깔빨리 결속력을 유지하는 기본 요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내혼적 경향을 지녔으며 주로 확대가족을 형성하였다. 각 가구는 생산의 기본단위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토지는 깔빨리에 의해 분배·통제되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토지 분배 등과 같은 데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즉 커다란 정치단위에 흡수되어도 여전히 깔빨리는 정치, 행정, 군사, 의례, 경제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깔빨리에 기반한 원주민 공동체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과 동질화되면서, 깔빨리는 점차 지연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바리오(barrio)로 대체되었고, 친척조직도 사라졌다(김세건 2001, 9-10).

문제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말해지는 혼인관계는 마을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계와 모계의 양성 중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혼대상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보듯,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가족”(mi familia)의 범위도 같은 성을 가지는 사람까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친척용어도 양변적이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 3세대를 지나면, “성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가족”이라고 하여 서로를 경계지우기도 한다. 이처럼 산 안드레스에서는 혈통에 따른 어떤 친척조직도 형성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계(家系)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여 증조부, 심지어는 조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측면은 11월 1일 ‘사자(死者)의 날’의 제사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본인과 친밀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국한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즉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면 대부분은 할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오히려 혈연관계는 없지만 자신과 친분이 많았던 사람에게 제를 올린다. 산 안드레스에서는 가족으로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친척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폼빠드라스고 같은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70·8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마을 외부인과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팬찮은 남자는 다 친척이라 마을에서는 결혼 상대자가 없었다”고 말하는 마을에서 가장 성원이 많은 성씨 중의 하나인 리베라(Rivera) 집안의 여성 까멜리아(Camelia Rivera)의 말처럼, 대부분의 다른 성씨의 가족과 친척관계에 있어서 결혼의 대상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부인과 결혼의 증가는 내혼제에 따른 결혼대상의 축소 그 자체보다는 산 안드레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970년대에 토마토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인근의 뿌에블라(Puebla), 게르레로(Guerrero), 미초아칸(Michoacán) 주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산 안드레스로 들어왔다. 이 주노동자 대부분은 계절 이주로 토마토 재배가 끝나면 자신들의 마

을로 돌아갔고,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토마토 재배가 쇠퇴하면서 산 안드레스에 일하러 오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었고, 2002년 조사 당시에는 토마토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산 안드레스에 일을 하러 온 사람도 없었다. 그렇지만 30여년 동안 지속된 토마토 재배에 따른 계절 이주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마을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마을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주로 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호수 부근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보통 이곳을 콜로니아 뽀블라나(Colonia Poblana, ‘뽀에블로 사람들의 동네’)라고 부른다.³⁾ 다른 한편으로 마을 사람들이 학교, 일, 상업 등으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마을 외부인과의 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산 안드레스는 식민지시기부터 석회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여 일찍부터 타마을과 교류가 많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인근의 다른 마을들의 비해 산 안드레스가 발전하고 근대화되었다는 근거로 많이 내세우는 많은 교사 수(김세건 2003, 26-27)에서 보이듯이 떼베스틀란, 꾸에르나바카(Cuernavaca, 모렐로스 주도(州都)) 등지에서의 교육 및 직장 생활도 외부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언급한 까멜리아도 꾸에르나바카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만난 모렐로스의 다른 마을 출신 사람과 결혼하였다.

산 안드레스에서는 아직까지 부처제(patrilocal, 父處制) 거주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모계보다는 부계 혈통이 우선시되는 가부장사회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속은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늦게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적게 받은” 막내아들에게는 부모가 살던 집을 상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살기 위한 유산과 자원이 없는 남자들이 아들이 없는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아들 우선의 상속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3) 뽀에블라 출신이 마을의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김세건(1999, 65)이 행한 1996년 인구센서스의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산 안드레스 주민 1058명 중 마을 출신은 856명(80.9%), 떼베스틀란을 포함한 모렐로스 주 출신은 66명(6.3%), 뽀에블라 주 출신은 54명(5.1%),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주 출신은 31명(2.9%), 켈로레로 주 출신은 23명(2.2%), 미초아칸 등 기타 출신이 28명(2.6%)이었다.

많은 집에서 여성도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거주지로 적당한 땅을 상속을 받게 되면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많다. 루이스(1976, 129)가 지적한 것처럼, 1940년대에 떼뽀스틀란읍 내에는 “모든 기혼자들의 20%이상이 모처제(matrilocal, 母處制) 거주를 하였다. 이들 경우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가난한 젊은이, 고아, 자신들보다 훨씬 연령이 많은 여자나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과 결혼한 남자들이었다.” 모처제 거주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처가 쪽에 사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마을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에는 처가 쪽 가족들과 사는 것은 나쁘고, 그런 남자들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두들 자신들이 편한 데로 산다.

모란(Morán 1993, 56)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조직은 적응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양계적 친척체계는 다른 잘 구조화된 단계적 친척체계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좀더 저항력이 있고 나아가 재생산력이 강하다고 한다. 결국 양변적인 거주지 유형은 일정정도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가구들이 생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외혼제 및 모처제가 증가하는 경향에서 보이듯이, 어떤 공식적인 친척조직을 형성하지 않는 산 안드레스에서 가족은 사람과 그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문화가 절합하는 공간으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조해 내는 동적 적응태로 작동한다.

III.2. 고폰빠드라스고의 형성과 역할⁴⁾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산 안드레스에서 가

4) 이 장은 김세건(2001)에 기반하여 본 논문과 관련된 부분으로 요약·구성하였다.

족친척관계를 보완해 주는 것은 대부모관계(代父母關係), 즉 폼빠드라스고라는 의사친족관계이다. 식민지시기에 깔빨리에 기반한 원주민 공동체가 바리오(barrio)로 대체되면서 물질 토대를 상실한 친척 조직도 사라졌는데(López 1989, 75-81; López 1996, 481; MeBride 1993, 153-157), 이를 대체한 것이 폼빠드라스고이다.

폼빠드라스고는 개인들간에 두 가지 유형의 관계를 형성한다. 첫 번째는 대부자관계(Padrinazgo)로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이며, 두 번째는 폼빠드라스고로 대부모와 대자녀의 친부모 간의 관계로 서로 폼빠드레(compadre, 남성) 또는 꼬마드레(comadre, 여성)라고 부른다. 대부모는 두 번째 부모의 역할을 한다. 즉 대부모는 대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살피 주는데, 특히 친부모가 죽는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자녀들을 키워 주기도 해야 한다. 촌로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자녀는 대부모에게 깍듯이 존경을 표현하였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대부모의 손에 키스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볼 수 없고, 또한 40년대 중후반에 떼뽀스뜰란을 조사한 루이스(Lewis 1976, 148)도 “이제는 더 이상 보편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루이스(Lewis 1976, 149)에 따르면, 떼뽀스뜰란에서는 이웃이나 친척이 아닌 폼빠드레를 선호하여 다른 바리오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떼뽀스뜰란읍처럼 바리오 단위로 분화되지 않은 산 안드레스에서는 가까운 친척 또는 이웃사람이 대부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60년대 이후 교육, 직장, 상업, 이민 등으로 인해 외부사회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직장동료 등 마을 외부 사람들이 대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부유하고 도시에 사는 대부모를 갖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런 대부모를 갖고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의례적 친족관계 형성은 세례, 3세 축제, 서약식

(confirmación), 첫회합(primer comunión), 15세 성인식 그리고 결혼 같은 종교적 생활 주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 중 세례, 서약식 그리고 결혼식 때의 대부모가 중요성을 지니며, 특히 세례 때의 대부모를 가장 중요시한다. 루이스(Lewis 1963, 1976)가 지적한 것처럼, 산 안드레스와 페쁘스틀란에서 보여지는 폼빠드라스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카톨릭의 원래적 유형을 넘어선 다양한 형태들이 확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로, 위에서 언급한 종교적 행사에서 맺어진 대부모관계 외에도, 집의 수호성인, 아기 예수상, 졸업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례적 대부모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결혼식 같은 커다란 비용을 축제에서는 한 명의 대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대부모가 있다. 즉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미사 대부모 외에도 반지, 13개의 복돈(arras), 결합줄, 음료수, 사진, 음악 등으로 나뉘어 대부모가 있어, 결혼식에서만 개인은 수십 명의 의례적 대부모를 가질 수 있다.

산 안드레스에서 이처럼 의사친족관계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의 원인은 우선 높은 경제적 비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마을 주민들은 “밀빠 알따(Milpa Alta, 멕시코 시티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산 안드레스와 의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라 대부가 되면 혼자서 모든 경비를 충당한다”고 하며, “산 안드레스에서는 큰 부자가 없어 한 명의 대부모가 전체 소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확대된 의사 친족관계는 산 안드레스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다른 마을들(Lewis 1976; Ingham 1989)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요인이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다른 마을들에서처럼, 산 안드레스에서 대부모와 대자녀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대부모와 친부모간의 관계가 좀더 기능적이고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확장된 의례적 대부모관계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이 정치적 지배 목적으로 의례적 대부모 체계를 이용하여 비대칭적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경과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쌍방은 존경심

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스텐(Usted)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즉 자녀의 친부모는 대부분 자녀들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여, 쌍방이 의례적 대부모 관계를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간다.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 사이도 꿈빠드레화되듯이, 의례적 대부모 관계를 통하여 한 개인은 가족의 범주를 넘는 관계망 즉 의사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친족적 성격은 산 안드레스에서 대부모관계는 대부모의 수에서뿐만 아니라 후원자와의 관계도 아이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조부모까지 확장된다. 예로 아이의 삼촌, 조부모도 후원자를 만나면 꿈빠드레 또는 꼬마드레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꿈빠드라스고는 단순히 개인들간의 쌍대적 관계를 맺는 예고-중심적(ego-centric) 구조를 넘어 친척, 2·3세로 확장되기도 한다. 즉 꿈빠드라스고는 쌍대적(dyadic) 관계라기보다는 다대적(plural)관계를 형성하며, 이 점이 꿈빠드라스고를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유용한 제도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의례적 대부모 관계로 얽히고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꿈빠드레 또는 꼬마드레라는 호칭을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적인 의례적 친족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상호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젊은이 사이에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콤팩(compac, compadre의 약칭)이라고 하기도 한다. 산 안드레스에서 대부모는 손님으로 집안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마을의 축제 등에 초대되고, 한 친척처럼 간주되며, 대부모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에 단합, 존경 그리고 호혜적인 고리를 강화한다. 이는 개인의 범주를 넘어 마을 공동체단위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꿈빠드라스고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결합된 친척의 유형, 즉 의사친척관계로 친척 관계망을 확장하고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꿈빠드라스고는 친척, 우정, 정치·경제적 연망 등으로는 적절하게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친척 관계를 대체하는 제도로 본다. 즉 꿈빠드라스고는 라틴 아메리카에

서 좀더 복잡한 사람들의 거대한 연망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폼빠드라스고는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생산, 정치·경제적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산 안드레스에서 폼빠드라스고는 일정정도 비개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상호 행동의 모델을 채널화함으로써 공동체내 또는 공동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상호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폼빠드라스고를 통해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는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극대화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간의 통합과 단결의 강화의 이면에는 분리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으로, 폼빠드라스고를 통해 상호관계의 거리와 경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폼빠드라스고는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동적인 관습이고 실천이며, 나아가 하나의 전략, 즉 “권력의 의례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폼빠드라스고의 역할과 기능, 의무 등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지라도, 특히 핵가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폼빠드라스고는 여전히 사회 연망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특히 친척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하는 개인 또는 핵가족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필요성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더 폼빠드라스고에 의존한다. 즉 개별화 및 개인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시됨으로써 폼빠드라스고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예로 미국으로 불법 또는 합법 이민이 일상화되는 오늘날 이민자가 끊임없이 소외되고 주변화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의 과정에서 가족, 폼빠드라스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친인척 및 친구, 폼빠드라스고 관계망이 이민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김세건 2000b, 118)

IV. 가구유형의 변화와 특징

가구의 조직 형태와 기능은 생물학적 재생산주기뿐만 아니라 정

차·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1996년 3월 현재, 산안드레스의 인구는 203가구에 1058명이며, 총 가구의 70.4%는 핵가족에 바탕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확대 가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1910년 멕시코 혁명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가구유형⁵⁾이 좀더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로 1897년에 산 안드레스는 인접한 오아칼코(Oacalco)의 아시엔다로부터 마을의 공동 토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토지를 각 가구(가구당 90,000m²)에 분배하였는데, 이 때 땅을 분배받은 마을의 총 가구는 72세대였다. 그리고 롬니츠(Lomnitz 1980)에 따르면, 1890년에 산 안드레스의 인구는 781명으로, 두 자료를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보면, 각 가구당 성원수는 약 11명에 이른다. 이 점으로 볼 때, 혁명 전에 산 안드레스에서는 확대가족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유형의 가구는 열악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좀더 유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촌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부모, 형의 가족(14명의 자녀) 그리고 나의 가족(12명의 자녀)이 함께 살았다. 모두 함께 먹고 일하였다. 옥수수, 토마토도 함께 경작하였다. 모든 것을 같이 하였다. 1977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게다가 아이들이 이미 성장하여 따로 살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멕시코 혁명동안 1915년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 등에 의한 비자발적이었던 간에 혁명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산 안드레스의 사회조직 및 인적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한 촌로의 언술(김세건 2003, 20)에서 잘 드러난다.

혁명 전에 산 안드레스는 꽤 큰 마을이었다. 아직도(1997년) 혁명 전

5) Carrasco(1993)는 페로스틀란과 인접한 야우테펙(Yautepec)의 몰로틀라(Molotla) 깔빨리의 1540년경의 자료분석을 통해서 식민지이전의 멕시코 고대시기에는 확대가족/가구가 중심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몰로틀라의 128가족 중 79가족(61.7%)이 확대가족이다(김세건 2001, 10).

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예로 혁명 전에는 콘데스(Condes), 쎄다노(Sedano), 아엔데(Allende), 알다마(Aldama), 레온(León), 삐에드라(Piedra), 살리나스(Salinas) 등과 같은 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성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을 인구의 약 60%는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혁명 후 피난처에 돌아 온 산 안드레스의 주민⁶⁾들은 “먹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할 도구도 쟁기를 끌 동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며 생존을 해 왔다. 즉 가족 노동력에 기반하여 우기에는 적은 토지에 기반한 옥수수·콩·호박의 생계농업에 종사하고, 건기에는 석회를 생산하며 생활을 영위하였다. 산과 들판에서 석회석 및 장작의 수집하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과정을 기본으로 하는 석회생산과 파종, 흙 북돋아주기 작업과 수확 등과 같이 시간을 다투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옥수수경작에는 어린아이 등 모든 가구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들의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구 노동력을 분산하기보다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런 상황은 토마토 상업농이 도입되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토마토 경작은 옥수수 경작보다도 시간을 다투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이 많고, 게다가 농화학제의 많은 소비에 따른 큰 자본을 필요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가구 노동력과 자본의 응집이 요구되었고, 특히 다른 곳에서 농업노동자들을 데려와야 했던 상황에서 노동력의 결집은 더욱더 절실하여 확대 가족에 바탕을 둔 가구 유형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토마토 상업농의 쇠퇴 및 이민의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날의 확대가구의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일시적 확대가구의 형태가 나타난다. 남편이

6) 한 촌로에 따르면, 혁명의 여진이 점차 안정기로 들어가던 1920년대 중반에 산 안드레스에는 25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페보스틀란 군(municipio)의 인구가 1910년 9715명에서 1921년 3000명으로 감소한 것에서도 보여진다.

미국과 캐나다로 계절 농업이민을 간 경우,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친정집에서 산다. 이 경우에 잠자리는 본래의 집에서 하더라도 하루 생활은 친정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가 불법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에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내 또는 자녀들은 조부모와 살게 되는데, 대개는 외조부와 함께 산다. 나아가 미혼모, 이혼녀 등의 증가하면서 모(母) 중심⁷⁾의 확대가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 및 친척관계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상호협력하고 결속을 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확대가족 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가족과 친척관계는 개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서로의 결함을 이어주는 고리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가족 및 친척관계는 산 안드레스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가는데 커다란 통로역할을 하는데, 이는 다음의 대화(김세건 2000b, 181)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자: 호세(José, 18살)는 테뽀스(Tepos, 테뽀스뜰란의 약칭)에 일하러 갔나?

미겔(Miguel, 호세의 아버지): 노랑머리(güero)(호세의 별명)는 1월29일[1997년]에 시카고에 갔다. 우리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나의 수입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 집을 갖고 싶다. 미국에 가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시카고엔 7년 전에 국경을 넘어간 나의 사촌들과 형제들이 있다. 그들이 호세를 돌봐주고 있다. 노랑머리는 9년 동안 테뽀스뜰란 읍내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였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는 시카고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최소한 하루 40달러를 번다. 한 달이면 천 달러 정도를 번다고 한다. 여기서 그렇게 벌려고 하여도 벌수가 없다. 호세는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7) 구띠에레스(Gutiérrez 2001, 198)에 따르면, 멕시코의 모중심적 가족 성격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시기의 여성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식민지시기에 신분의 위치는 여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최상층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기독교인, 귀족신분의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메스티소는 기본적으로 원주민 여성에 태어난 사생아였던 것이다.

개인간의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의 측면은 의사친족관계인 콤빠드라스고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점은 한 주민이 마을 공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젊은이의 이야기(김세건 2001, 28-29)에서 잘 드러난다.

사울(Saul)이 점유한 땅은 하천의 일부로 국가재산이다.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 나는 마을총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가족 또는 대부모라며, [문제가 있어도] 비판과 반대를 하기보다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족과 (의사)친척관계는 사회적인 것으로 농촌사회에서 가족과 친척관계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교환일 것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잘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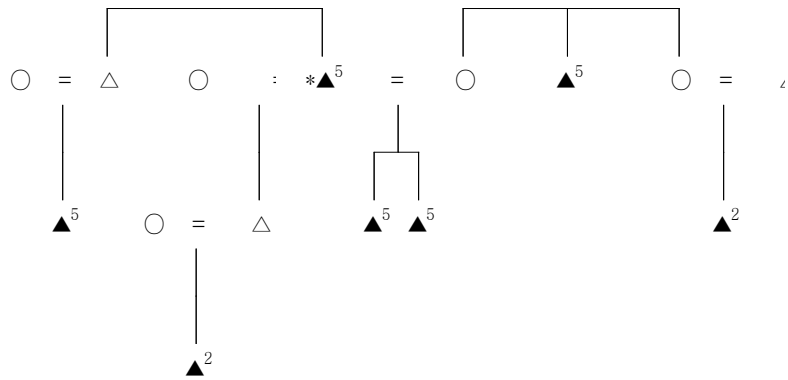
마침내 내일(1998년 2월22일) 추수를 끝낼 것이다. 대부분은 이미 추수를 마쳤는데, 우리들은 추수가 늦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빼온을 고용한 반면에, 우리들은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단지 가족들로만- 아버지, 두 형제, 나의 아들들(3형제) 그리고 나- 일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게다가 형제들은 택시기사이고 나는 교사여서, 단지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었다.

1995년에는 나는 옥수수 농사를 짓지 않으려 하였다. 옥수수 가격도 낮고, 게다가 나는 캐나다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아내와 어린 두 딸만이 집을 지키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농사일은 여성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농사일을 도와줄테니, 3년간 저당을 잡은 땅을 놀리지 말라고 해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

친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구간의 협조는 노동협업과 상부상조를 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주고, 특히 위기 상황에 큰 힘을 발휘한다. 이 점은 정부의 농업장려금 수혜자들의 관계에서 잘 보여진다. 1997년 정부는 개량종 옥수수의 파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량종을

과종한 농민들에게 헥타르당 500 빼소씩의 지원금을 주었다. 개량종을 과종한 38명 중 9명 농민이 총 34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중 7명 농민(29헥타르)은 서로 친척관계에 있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부 농업장려금을 받은 농민들의 친척관계



▲ 개량종 장려금을 받은 농민(숫자는 장려금을 받은 경작면적(헥타르)
 * 처음으로 개량종 장려금을 받은 농민

산 안드레스에서 가족과 친척관계는 돈을 빌리거나 노동력을 제공 하는 정도의 협동을 하는 한정된 호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가족들 사이에 제도화된 일상적인 협력관계는 없다. 다른 마을에서처럼(Arizpe 1990; Ruiz 1991), 산안드레스에서 친척관계는 생산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고, 법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직으로 형성·발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이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확대 가족에 기반한 가구가 1960·7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토마토 상업농과 일정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전히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70년대에 꾸에르나바카에 위치한 공업단지 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발달이 가져 온 공장 임노동과 80년대 중·

후반부터 본격화된 계절농업이민 등으로 수입원이 다변화되면서 핵 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점차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65년경부터 아버지는 토마토 재배를 하였지만, 그리 수입은 좋지 않았다. 게다가 땅도 많지 않아서 생활이 빈곤하여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했다. 내가[3형제 중 막내인] 21살의 총각이던 1973년부터 니산(Nissan)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에 결혼을 하고, 분가하였다. 경제위기로 1994년에 나를 해고할 때까지 니산에서 일하였다.

내 집을 갖고 싶어서 1991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버지니아에 일을 하러 갔다. 그곳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많이 번다. 번 돈으로 집을 지었고, 텔레비전 등의 생필품을 사고 조금은 저축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내 집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나와 결혼할 여자만 없을 뿐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땅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규모인 가구들이 대가족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분가를 하는 것도 또한 어려웠다. 임금노동과 미국과 캐나다로의 계절농업이민은 바로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자식들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였다. 일정정도 이것이 핵가족의 증가를 부채질하였다. 이는 마을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시부모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막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따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였다. 이때부터 남편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일을 하러간 사이에 많은 여자들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틀라신 페로(tlazinteros, 밤에 담을 넘어 여자 침실을 찾아드는 남자들)들이 많이 있었다.

기존 거주지의 작은 규모로의 분할 및 밭이나 임야 지역으로의 거주지의 외연적 확대는 일정 정도 분가 및 핵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 안드레스의 주거지는 보통 각 면이 약 30 m인 정방형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한 구역

은 다시 4등분되어 각 가구로 분할되어 있다. 각 가구의 대지는 주택지와 텃밭(*corral o solar*)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텃밭은 멕시코의 많은 농촌 마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옥수수,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텃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거주지로 분화되었고, 지금 기존의 거주지에서 텃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은 후손이 많지 않았던 2-3가구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가 분화되면서 거주지는 점차 가까운 밭이나 산으로 확대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을의 북쪽의 산등성이에 위치한 ‘콜로니아’(Colonia)이다. 앞에서 언급한 콜로니아 뽀블라나는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라면, 콜로니아는 마을 사람들의 후손들에 의한 가구 분화에 의한 것이다. 핵가족의 증가는 가구간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여자들은 친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면이 있으나, 분가하면서 친정과의 관계가 좀 더 활발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母)중심의 확대 가족이 나타나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의 가구유형은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점차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구유형의 변화와 농촌 가구의 경제활동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적응전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V. 농촌 가구의 적응전략과 변화

농민경제는 “생산활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일정정도의 독립성(*autonomía*)과 자본보다는 노동력에 바탕을 둔 생산”(Paré 1988, 36)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적응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규모, 성별 및 연령별 구성, 다른 일자리 고용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력 유용가능성에 기반한다(Chayanov 1966, 5-6; Warman 1988, 312).

산 안드레스에서 각 가구들이 토지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토지 규모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관계시설이 없어서 건기에는 토지와 관련된 생산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곳의 주민들은 가구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다른 종류의 수입원을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농업은 유일한 직종이 아니라 다른 활동과 결합되어 있다. 혁명전후의 시기에서 1950-60년대까지 농민들은 우기에는 옥수수 농사를 짓고, 건기에는 석회 및 숯 생산 그리고 임금 노동에 종사하였다.

농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구의 노동력을 농사, 수공업 등 다른 생산 활동의 주기에 맞게 가구의 노동력을 적절히 분배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노동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과 연령별의 분업이다. 산 안드레스에서 남녀간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편이다.

나는 1924년에 태어났는데, 이 때는 이미 혁명이 끝났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다. 내가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들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가난한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살았다.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미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농사를 짓고 있다.

남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농사 그리고 소와 말을 돌보는 것이다. 또한 석회와 숯을 생산하거나 미장 같은 특수한 일 또한 남자들의 몫이었다. 남자들은 여자를 도와 집에서 물을 길러다 주고, 판매하거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빨감을 하며, 집을 수리하고 옥수수 알갱이 털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긴다.

대부분의 집안일은 여성의 몫인데, 가족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혁명 전후에는 남자들이 인근지역의 사탕수수 아시엔다에 일하러 갔거나, 특히 다른 마을들로 석회를 팔러 감으로써 그리고 1980년대 이후로는 미국·캐나다로의 일시농업이민 등으

로 여성들은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또한 여성들은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닭,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고, 텃밭에서 채소 등을 재배한다. 그러나 산 안드레스에서 여성들은 농사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로 산 안드레스 여성들은 남자에 못지않게 들판에서 일을 하는 이웃 마을 산따 까따리나(Santa Catarina)의 여성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여기기도 한다. 산 안드레스의 여성들이 들판에 나가는 것은 음식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비료 살포 작업 등의 가벼운 일에 참여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가정 및 경제 활동은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했던 여성들은 고용노동, 음식 또는 야채, 채취물 판매 등의 상업 등에 참여하였는데, 이 점은 다음의 이야기들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아버지는 말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엄마는 다른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또르띠야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들을 기르셨다. 나도 7.8살이 되면서부터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옥수수를 찢어 주고, 계곡으로 빨래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였다.

엄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아마뜰란(Amatlán), 산또 도밍고(Santo Domingo)등과 같은 이웃 마을들에 석회를 팔러 다니셨다. 새벽 5시경이면 노새에 석회를 싣고 집을 나섰다.

특히 1970·80년대 이후에는 때뽀스플란과 꾸에르나바카의 가정집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며, 또한 학교 선생님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예로 1996년 3월에 행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마을에 35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 중 19명이 여성이다.

연령에 따른 노동의 분업도 역시 중요하다. 큰 아이들이 부모들을 도와 농사일과 동생을 돌보는 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때로는 어린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여야만 했다. 성과 연령에 따른 노동 분업에 바탕을 둔 가족의 적응전략은 변해 왔는데, 교육기회의 확대, 생산과정의 변화 및 농업의 상대적 가치 하락, 특히 공장 고용 기회의 증가, 미국과 캐나다로의 일시이민 등이 가구내의 가구원 관계 및 노동 분업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근대 교육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나아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남자든 여자든 중학교까지는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근대 교육으로 인해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도 농업보다는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는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예로 단순하고 긴 노동 시간이 투여되는 것은 아닌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화학비료를 주는 일은 빼운을 고용하기보다는 부인, 공부하는 자녀 등의 가구 노동력에 의존한다.

무엇보다도 가구내의 노동 분업과 가구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장 임금 노동의 증가와 미국과 캐나다로의 일시 농업이민이다. 멕시코 농촌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 중의 하나는 겸업농가가 점차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Sampedro 1991; Szasz 1993). 낮은 농산물가격, 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농업활동은 자급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고 비농업적 경제활동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농사를 통한 재생산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이농은 농민가구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 산 안드레스에서 토마토 상업농이 사양길로 들어서면서 농민들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던 국경을 넘게 되었다. 이 정도가 어떠했는지는 교직을 이수했음에도 “돈도 없고 뺨도 없어” 교사자리를 못 잡고 행운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김세건 2000b, 181)에서 잘 드러난다.

80년대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진전을 피하고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북으로 갔다. 그리고 대부분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건설현장 또는 식당에서, 그리고 운이 좋은 일부는 공장에

서 일을 한다. 선생이든, 기술자든, 회계사든, 의사이든 그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단지 국경을 넘어 온 멕시코인일 뿐이다. 마을의 거의 모든 집의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식들이 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북’에 또 다른 마을 있고, 그 마을 이름은 **산 안드레스 델라 칼리포니아(San Andrés de la California)**, 예로 산타 아나(Santa Ana)엔 약 1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산다. 나도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95년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산타 아나에 살면서 한 미국인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했다. 돈을 벌었지만, 짐세 내고 뭐하고 나면 남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집이 그리워서 1년 만에 돌아왔다. 거기에 가면 돈은 조금 벌겠지만, 가족과 함께 이곳에 살린다.

미국이나 캐나다로의 일시 농업이민이 일반화되기 전에도 농민들은 농한기, 즉 건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인근 도시 등지로 나가기도 했지만, 우기가 되면 마을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로의 일시 농업이민은 마을과 같은 농사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구의 적응전략 및 노동분업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도 전(全)가구의 이농이 아닌 이상, 농민가구들은 기존의 조직과 농업활동을 해체하기보다는 남은 가구 노동력을 이용하여 유지한다. 노령층 및 여성 노동력이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산 안드레스에서 여성들의 농업활동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2년 전까지만 하여도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 그러나 남편이 파종만 한 후 캐나다로 가버렸기 때문에 혼자 들판에 남게 되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이 농사일을 도와주지만, 내가 빼운들을 고용하고 비료와 같은 농재료도 구입해야 한다. 다는 아니지만 농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빼운을 고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고 게다가 임금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딸들[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과 함께 두 번째 흙 북돋아주기 작업 전에 끝나쳐야 되는 비료 작업을 하였다.

이민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민으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어 농업노동력이 여성화되고, 나아가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일상생활 문화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농촌 가구의 양태는 현대 자본주의의 형성과 확산의 특수성의 단면의 잘 보여준다(Szasz 1993, 24). 농민들의 가장 중요하고 최후의 자원인 노동력은 점차 국내의 시장으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편입되어 가고 있다.

농민가구들은 새로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들의 조직을 변형시켜가며 시기에 따라 재규정된다. 최근의 변화 중의 하나는 가부장적 권위를 중심으로 통합되게 하였던 전통적인 규범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점차 (농업 그리고 비농업적) 다양한 일자리의 기회, 산업중심지의 흡입력, 농업의 위기 등은 핵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점차 중요성을 갖게 하였고, 개인화를 촉진하고 있다(Lazos y Godínez 1996, 248). 이는 다음의 사례들에서도 잘 보여진다.

아들들은[큰 아들은 기혼으로 아이들이 둘이 있고, 둘째, 셋째 아들은 미혼이다. 이들은 모두 함께 생활한다.] 돈을 벌기 위하여 각각 자기 가 원하는 데로 산다. 어느 누구도 나의 농사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24세, 미혼으로 부모, 남동생과 함께 생활] 1995년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별도로 옥수수를 심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 것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옥수수를 팔아 모은 돈은 아버지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았고, 도와줄 때는 다른 빼어들처럼 임금을 받았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가족간에 형성된 연결고리는 자원이용, 노동조직, 생산물의 분배와 소비에서 다소 약화되었고, 더불어 가족성원간의 관계들도 점차 물상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확대 가족이 영속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함과 더불어 핵가족에 대한 강한 집착은 개인주의 및 사회구조에 있어 원자화되는 특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Lewis 1976, 107). 이 경향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의사친척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언설(김세건

2001, 19-20)에서 잘 드러난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감사하다. 페르민(Fermin)[화자와 이종사촌관계]을 바라. 페르민이 니산(Nissan)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 그 돈으로 택시도 샀었다. 이 때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 달라고, 또는 술 한잔이라도 얻어 마실려고 페르민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마을의 아유단떼(ayudante, 한국 행정체계와 비교한다면 마을 이장이라고 할 수 있음)도 되었다. 그런데 지금 바라, 대부하고 아유단떼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택시도 팔았다. 지금 어느 누구도 페르민에게 대부가 되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

가족과 (의사)친척관계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부딪치면서 적응·변화되어 온 역사적 산물인데, 오늘날에는 경제적 측면에 매몰되어 물상화되는 측면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도 보여진다. 이 점은 가족과 의사친척관계에 기반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사회조직과 마을 공동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는 1997년 마을 상수도 관리 위원회의 임원을 뽑는 총회에 대한 한 주민의 이야기나 정부의 농업진흥프로그램인 뿌로감뽀(PROCAMPO)의 새로운 대표자 선출에 대한 현 대표자(1998년)의 이야기(김세건 2000b, 191)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위원회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총회에 참석하였다. [두 번의 총회는 참석자가 없어 무산되고 세 번째로 열렸다.]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은 아유단떼가 총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국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보조품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보조품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마을 사무소에 들린다. 그러나 일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대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북(el Norte, 미국)에 갈거라고 말한다. 결국 총회에서 뿌로감뽀 위원회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 다시 총회를 열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도 대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버는 것은 하나 없이 경비만 들고, 게다가 지원금을 잘 타내지 못하면 모든 죄를 대표자에게 씌우려고 하니 하지 않으려고 한다.

깔빨리를 대체하면서 성립된 마을 공동체는 멕시코 역사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중 하나가 개인과 가족/가구사이의 관계를 위한 조직적인 단위로 기능하였고, 나아가 이는 외부와는 구별되는 일정정도 독립된 정치, 사회문화적 단위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가구의 개별화, 개인주의적 성향 등의 강화는 개인들의 공동부역, 마을 공식적 직책의 의무적 수행체계, 즉 까르고 체계 등에 기초하였던 산 안드레스의 공동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VI. 나가며

산 안드레스는 가족 중심적 사회이다. 어떤 공식적인 친척조직을 형성하지 않는 산 안드레스에서 가족은 혈연관계에 의해 구성된 유일한 조직으로, 개인 및 마을의 사회조직의 핵인 것이다. 또한 개인이 가족의 범주를 넘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는 꼬빠드라스고는 구조화된 생산, 사회, 정치경제적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생활에서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획득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핵가족이 증가하는 오늘날, 꼬빠드라스고는 사회 연망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산 안드레스의 각 가구는 역사적인 산물로, 생물학적인 재생산주기에 의하여 변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던 영세한 옥수수 생계농업과 석회 생산에 기초하였던 산 안드레스 각 가구는 가구노동력을 분산하기보다는 집중시킬 수 있는 확대가족을 선호하였고, 이는 노동과 자본 집약적이었던 1960-70년대의 토마토 재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발달에 따른 임노동의 증가와 계절 농업 이민은 핵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증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토마토 상업농의 쇠퇴와 멕시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일거리의

감소가 야기한 산 안드레스의 가족경제의 위기가 심화된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캐나다로의 계절농업이민은 산 안드레스의 농촌 가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구와 가구 노동력을 통해 자연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해 왔다. 산 안드레스 농민들은 남성들의 계절농업이민이 증가하면서 농사를 포기하기보다는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한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 특히 오늘날의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야기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화할 수 있었다. 여기에 가족, 친척 그리고 대부모간의 상호 협조는 각 가구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산 안드레스에서 가족, (의사)친척은 다양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갈 수는 동적인 적응태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로의 계절이민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는 심화되고 나아가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 가구노동력의 국내외 시장으로의 편입, 다양한 일자리의 기회, 농업의 위기 등은 핵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점차 중요성을 갖게 하였다. 이는 가구원간의 관계에서 있어서 개인화와 물상화가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마을 사회구조 및 공동체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의사)친척관계에 있어서의 개인화와 물상화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단위를 형성해 온 산 안드레스의 마을 공동체성에 어떤 형태와 특성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이다.

Abstarct

En San Andrés de la Cal en que los individuos no se agrupan en formas organizadas por el principio de descendencia unilineal ni

ambilineal, la familia constituye el único grupo corporado de parentesco. Por eso es que la unidad doméstica puede ser considerada como una unidad adaptativa que puede responder a un amplio rango de presiones ambientales y socioeconómicas. También el compadrazgo que es la relación interpersonal más formal fuera de la unidad doméstica han alcanzado ciertas actividades seculares como el intercambio entre sí mano de obra reforzando los lazos de solidaridad, respeto y reciprocidad.

La emigración temporal a los Estados Unidos y Canadá forma parte de las estrategias para la subsistencia de hogares campesinos de San Andrés de la Cal en condiciones socioeconómicas adversas. Por otra parte la emigración ocasiona la feminización del trabajo agrícola y la escasez estacional de la mano de obra cada vez más notable. Con el cambio socioeconómico los nexos establecidos entre los núcleos familiares son menos estrechos en el acceso a los recursos, en la organización laboral, en la distribución y consumo del producto. Además, la relación entre los miembros familiares se va materializando como la relación hombre-naturaleza. Esta tendencia no sólo ocurre en la unidad doméstica sino también en las organizaciones sociales y en la comunidad.

Key Words: Unidad doméstica agrícola, Compadrazgo, Feminización del trabajo agrícola, Escasez estacional de la mano de obra/농촌가구, 콤파드라스고, 농업노동의 여성화, 노동력의 계절적 부족.

논문투고일자: 2004. 4. 18

심사완료일자: 2004. 5. 13

게재확정일자: 2004. 5. 17

참고문헌

- 김세건(2000a), 「멕시코 한 농촌의 농업의례와 인식체계의 변화: 이
원성과 “우리들은 문명인”」,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1,
pp. 117-160.
- 김세건(2000b), 「북을 향하여: 멕시코 농민들의 미국 캐나다로의 일
시 이민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제양상」, 한국사회과학, Vol.
22, No. 2, pp. 159-198.
- 김세건(2001), 「멕시코 농촌에서 꿈빠드라스고의 구조와 역할」, 비교
문화연구, Vol. 7, No. 2, pp. 3-35.
- 김세건(2003), 「메스띠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
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Vol. 36, No. 2, pp. 3-36.
- Arizpe, Lourdes(1990), *Campesinado y migración*, México: SEP.
- Barlett, Peggy(1980), “Adaptive Strategies in Peasant Agricultural
Produc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No. 9, pp. 545-573.
- Bennett, John(1969), *Nothern Plainsman: Adaptive Strategy and Agrarian
Life*, Illinois: AHM Publishing.
- Carrasco, Pedro(1993), “La familia conjunta en el México antiguo: el
caso de Molotla” in Pilar Gonzalbo(ed.), *Historia de la familia*,
México: Instituto Mora/UNAM, pp. 106-125.
- Chayanov, A. V.(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Illinois:
Richard D. Irwin.
- Gutelman, Michel(1975), *Capitalismo y reforma agraria en México*,
México: Era.
- Gutiérrez(2001), *Mitos nacionales e identidad*, México: CNCA.
- Kim Lim, Se-Gun(1999), *El cambio, sus características y el ecosistema
en un pueblo campesino mexicano, la tesis de doctorado en
antropología*,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Lazos, Elena y Lourdes Godínez(1996), “Dinámica familiar y el inicio de

- la ganadería en tierras campesinas del sur del Veracruz” en Luisa Paré y Martha Judith(eds.), *El ropaje de la tierra: naturaleza y cultura en cinco zonas rurales*, México: UNAM/Plaza y Valdés, pp. 243-353.
- Lewis, Oscar(1976), *Tepoztlán: un pueblo de México*, México: Joaquín Mortiz.
- Lomnitz, Claudio(1982), *Evolución de una sociedad rural*, México: FCE.
- López Austin, Alfredo(1989), *Cuerpo humano e ideología: las concepciones de los antiguos nahuas*, México: UNAM.
- López Austin, Alfredo(1996),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Lombardo, S. y E. Nalda(eds.), *Temas mesoamericanos*, México: INAH y CNCA, pp. 471-507.
- MeBride, G. M.(1993), “Los sistemas de propiedad rural en México”, *Dos interpretación del campo mexicano*, México: CNCA, pp. 33-244.
- Melliassoux, Claude(1987), *Mujeres, granjeros y capitales*, México: Siglo XXI.
- Morán, Emilio(1993), *La ecología humana de los pueblos de la Amazonia*, México: FCE.
- Mounsey, James(1991), *Estructura de los grupos domésticos de una comunidad de habla náhuatl de Puebla*, México: INI/CNCA.
- Orlove, Benjamin(1980), “Ecological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No. 9, pp. 235-273.
- Paré, Luisa(1988), *El proletariado agrícola en México*, México: Siglo XXI.
- Ruiz, L. Andrés(1991), *Cafecultura y economía en una comunidad totonaca*, México: INI/CNCA.
- Sampedro, M.(1991), “El mercado de trabajo en el medio rural: una aproximación a través del género”, *Política y Sociedad*, Vol. 8, pp. 25-33.

Stavenhagen, Rodolfo(1982), *Problemas étnicos y campesinos*, México: Instituto Nacional de Indigenistas/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Szasz, Ivonne(1993), *Migración temporal en Malinalco: la agricultura de subsistencia en tiempos de crisis*,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Colegio Mexiquense.

Warman, Arturo(1988), *Y venimos a contradecir: los campesinos de Morelos y el Estado nacional*, México: Casa Chata.